

제 60 호

에이터

치유정원 '십자가의길 제 IX 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제 60 호

01/01-21

2018. 7



발행일 | 2018년 7월 10일

발행인 | 남금숙

편집인 | 편집위원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우)32907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 1166

Tel. 041)732-2085, 0889 Fax. 733-0587

# CONTENTS

## 03. 여는글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 이재승 사무국장

## 04. 종사자 글

2018년 교구청 신입직원 교육을 다녀온 후 / 정슬기 생활지도원

## 05. 거주인 글

남대문시장방문기 / 이○수

## 06. 프로그램

나의 버킷리스트 / 거주인 임○수, 라○무, 양○호

## 08. 신입직원 글

신고합니다~! / 이도한, 김도희, 박선영 생활지도원

## 09. 봉사자 글

성모의마을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 동방고등학교 이은총

## 10. 사랑방

언젠가 다시... / 배찬호 사회복무요원

## 11. 알림방

소중한 만남과 인연

## 12. 소식방

주교님방문 / 삼성화재 후원 / 직원표창 /  
공군공연·참모총장방문 / 개별욕구(선유도) / 한국타이어삼겹살파티

## 14. 사진첩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 16. 후원 및 봉사자 현황

## 18. 수입지출현황

## 19. 성모의기사수녀회

## 여는글

##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이재승 사무국장

장애인복지에 첫발은 들여놓은 때는 2000년도였다. 당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점사항은 정상화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와 지역사회중심재활(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이었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거주시설에서도 수용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거주시설 등으로 용어의 변화와 시대에 맞게 역할과 방향도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 맥락은 시설 중심 재활(IBR Institution based rehabilitation) → 지역사회중심재활(CBR)과 권리보장으로 변화-

성모의마을은 2005년 입사당시 수용시설 및 생활시설의 역할 정도였다. 그러나 2017년 7월 성모의마을에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거주시설이라는 용어에 맞게 직원들이 거주인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권리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거주인들의 욕구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퇴사 당시 기관발전과 서비스 향상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잘 정비되고 실행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에 부합하여 3명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이는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모의마을 재입사 1년이 되는 이 시점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탈시설화라는 용어가 또 한번 놀라게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법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만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장애인당사자, 종사자, 운영자,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족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주어야 하고 가족들의 욕구에 부합해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성모의마을 설립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가톨릭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설립목적에 맞게 앞으로 우리 가족들과 기관을 위해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한다.

\* 정상화원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사회안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안에서 차별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사자글

## 2018년 교구청 신입직원 교육을 다녀온 후

정슬기 생활지도원



입사한 지 어언 2년이 다 되어서 조금 늦게나마 대전 교구청에서 시행되는 법인 신입직원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동료 전인숙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혼자였다면 쓸쓸 했을 텐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교육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를 안고 참여하였습니다. 가톨릭 종교가 아닌 저에게는 조금의 부담과 종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마냥 어렵지 만은 않았고 강사님들과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 해주시어 많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카리타스(caritas)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와 관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였으나 뜻과 만들어진 계기를 알고 나니 제가 다니는 직장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 첫째날, 카리타스(caritas)의 어원에 대해 교육하며, 법인에 속한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기관의 신입직원들과 2개의 조를 나누어 실행하였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 어색하고 어찌해야 하나 하였지만, 함께 기관들을 방문하고 대화를 하며 친근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기관들은 3곳이었는데(동구다문화가족센터, 동구 다기능 노인복지관, 대덕구 노인 센터), 방문한 곳 중 다문화 가족센터가 기억에 남습니다.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저에게는 조금 더 생소하고 궁금증을 일어나게 하는 곳이었으며, 다른 시설보다는 장애인시설과는 다른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서 기관 방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거주인글

# 서울 남대문 시장 나들이



이○수 거주인

내가 서울에 가본지가 언제지? 그리고 보니 부모님께서 다섯 살 때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셨다.

3월16일 당일여행 서울 남대문 시장 나들이. 처음 가보는 남대문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나 맛있는 걸 사먹어야지.(큭큭...) 들뜬 기대. 설렌 마음 가득 싶고 서울로 향해 떠났다.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운전을 맡은 김한솔 선생님의 힘든 내색 않고, 자신이 출면 안 된다며, 아- 서울여자. 아- 서울여자. 농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웃음이 터졌다.

재미난 농담과 친절한 선생님들 덕분에 재밌었다. 그렇게 서울도착 전부터 집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서울에 점점 가까워지니 차와 집만 보였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은 집도, 사람도, 차도 많다. 그리고 서울여자나 여기 사는 여자들이나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웬 서울여자 타령인지...

한강 대교를 다니면서 꽉 찬 차들을 보며, 차들이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물처럼, 색색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줄 지어 가는 광경에 나는 또 다시 감탄을 했다. 수많은 차들과 삶의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멋진 도시. 그리고 남산 타워가 보였다. 드디어 서울에 온 건가?

옛날 한남동에 살았을 때 자주 갔던 남산. 그 옆을 보니 옛날 달동네를 떠오르게 하는 산 위에 빼곡히 들어찬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태원에서 우리도 저렇게 높았던 곳에서 살았던 때가 떠올랐다. 그런 후 우역곡절 끝에 찾은 식당, 점심 식사로 왕갈비를 먹었다. 그 때 또 다시 이태원에서 부모님께서 돼지갈비 장사하셨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이태원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만든 돼지갈비가 참 유명했었지... 그 만큼 부모님께서 돈 벌기 위해 많이 고생하셨지..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교차하게 했던 서울.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이지만 남대문 시장은 처음 가봤다. 남대문 시장 쇼핑하려 가는 길도 모르는 곳을... 이리 저리 다닐 때 길거리 마다 노점상들. 그 노점상들의 인심 넘치는 인심떨이, 친한가격 나쁜 가격이니 하며 주인 옆에 서서 설명해주며, 살 것을 돋는 박지연 선생님, 함께 다니며, 보이지 않게 도와 준 착하고 성실한 박성규 선생님들이 함께 있어서 즐거웠다. 그리고 처음 본 승례문과 이별하면서 20년만에 서울 남대문 당일 여행을 마감하며 (위○홍, 박○성)과 함께 성모의마을로 무사히 돌아왔다.

다음엔 서울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로 가볼까?. \*^^\*



지원사업

# 나의 버킷리스트

천주교 대전교구 한끼 100원 나눔운동 본부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나의 버킷리스트’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었다. 가족들은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 웨딩촬영, 고향방문, 바다여행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았다.

2월

## 웨딩촬영

임○수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웨딩드레스 입어 보기!!

나도 여자인데 태어나서 한번은 입어 봐야쥐~ 콜~! 그렇게 시작된 나의 새로운 도전~

스튜디오로 가는 내내 설레고 긴장이 되었다. 웨딩촬영을 위해 메이크업을 마친 거울속의 나는 내가 아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었다.

엄마와 같이 사진을 찍는데 나 때문에 고생한 옮 엄마... 나보다 더 예쁜 엄마의 모습에 내 맘도 뭉클했다. 생애 첫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는 것~! 나에게는 정말 값지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4월

## 고향방문(천안)

라○무

입소한 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늘 그리워하던 고향 천안에서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며 추억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학교를 다닌 걸 기억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느낄 수 있었고 다시금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고향방문은 나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6월

## 바다여행(진도)

양○호

고향이 강원도인 나는 바다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있어서 버킷리스트로 1박 2일 남해바다(진도)여행을 선택하였다. 평소 시설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여유를 느끼면서 60평생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여행을 통해 소소한 일상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행복이란 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 환갑을 맞이하여 선물처럼 다가온 바다 여행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준 대전교구 한끼100원나눔 운동본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입직원글

## 신고합니다~!!

이도한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

김도희  
선생님



### ● 박선영 선생님

어느덧 성모의마을과 함께 한 시간이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모의마을의 첫인상은 5월의 햇살처럼 빛나고 싱그러운 녹음처럼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거주인들 또한 따뜻하게 인사해주시고 맞아주셔서 출근 첫날의 설렘과 떨림은 곧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성모의마을이 참 좋습니다. 출근할 때 들리는 새소리, 거주인들의 인사소리, 선생님들의 대화소리, 일요일 아침의 기도소리, 밤을 지나고 느끼는 새벽의 고요함, 맛있는 식사시간, 은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시간, 큰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일상의 흐름 등등 모두 다 참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저에게 다가오겠지요. 저도 더 열린 마음과 더 큰 열정으로 성모의마을의 운전한 한 구성원으로서 올곧게 서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 ● 이도한 선생님

처음 지인, 선배, 친구들에게 생활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되고 관심이 생겨 성모의마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입사 후 첫 출근~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출근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선생님들께서 편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연습을 하고 모르는 것들은 배우며 가족 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의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 김도희 선생님

날이 너무 좋은 5월, 8년 동안 다니고 다시 오고 싶어 했던 성모의마을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첫 출근이지만 가족들이 그대로 저를 반기고 반 이동을 한 듯 어색하지 않게 출근 하였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보이고 다시 볼 수 없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 웃음 주고 행복한 성모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봉사자글

# 성모의마을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이은총  
동방고등학교 1학년



처음 성모의마을에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을때 내가 과연 봉사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했다. 성모의마을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지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일은 장애인분과 함께 원내 산책을 했던 일이었다. 그분은 말씀도 잘 하시고 사진 찍는걸 참 좋아하셨다.

그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다. 장애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듦에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도움을 드리려 봉사를 하러 갔다가 내게 많은걸 가르쳐주시고 밝게 대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히려 많은걸 얻었다.

그 분께서는 “글을 쓰고 싶은데 손이 떨려서 잘 안돼요. 그래서 봉사자 분들이 오시면 그때 부탁해요”라고 했던 말이 나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에도, 수업시간에 필기 할 것이 많은 것도, 수행평가가 글짓기인 것에도 불평했다. 내가 불평하고 하기 싫어하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스스로 꼭 하고 싶은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내가 인생의 참 많은 시간을 불평으로 허비하

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은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그 분들을 보면 ‘헬로 사이언스’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생 각났다. 뇌파를 감지하는 안경을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혀 저장된다는 것이다. 성모의마을 장애인 분들에게도 그러한 안경이 보급된다면 어떠한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해 하시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하게 되었다.

성모의마을 봉사활동을 통해 짧지만 내게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될거 같다.



사랑방

## 언젠가 다시...



배찬호 사회복무요원

처음 만남은  
시디신 레몬에이드처럼 강렬한데  
끝에 이별은  
여름에 아메리카노처럼 생각나요

길었던 만큼 정들었고  
짧았던 만큼 아쉬움도

그 사이 쌓인 추억보따린  
저 저녁 하늘 은하수처럼  
내 마음 속에 반짝이겠죠

같은 하늘아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사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같이 웃고 울며 떠들었던 그 날을  
내 마음 안에 고이 싸매어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웃으며 웃으며 애쓴 웃음을

언젠가  
다시  
- 안녕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을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어느덧 이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봉사활동으로 방문한 것이 연이 되어, 7년이 지나 군인으로 출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년이란 짧은 시간, 7년이란 긴 시간. 그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잊힐래야 잊히지 않음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겠지요. 부족하고, 모자랐던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사랑이었기에, 보답하고자 나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성급함에 마음이 앞서 실수를 거듭, 반복하여 몇몇 선생님들께는 실망을 안겨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시 되돌아가 사과를 해야 했음에도, 이리저리 치인 마음에 뒤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못했습니다.

‘이젠 안녕’ 이란 노래 가사 속,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닌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란 밀처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자하니, ‘잘 가’라는 말보다는 ‘내일 보자’란 말로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고동락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한 만큼, 지금의 이별은 나중에 있을 만남을 위한 잠깐의 쉼표임을 이해해 주시고, 마침표를 찍을 때 까지 기도와 응원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림방

## 소중한 만남과 인연

“

저희와 오랜시간 함께 했던 김영교 베드로 신부님께서 향긋한 끝내음과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4월 대전 공동사제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갑자기  
떠나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쉬운 마음을 글로 담아봅니다~

”

### 사랑하는 김영교 베드로 신부님께 띄우는 편지



신부님~ 그동안 성모의마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포근하게 웃으시던 미소가 그리워서 인자 요즘 들어 신부님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으로 가득한 푸르름  
이~ 가을에는 알록달록 낙엽이 휘날리고~ 겨울에는 하얀 세상으  
로 변하던 아름다웠던 성모의마을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신부님의 따스한 미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앞으로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길 성모의마을 가족 모두  
기도 하겠습니다.

신부님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 환영합니다 이강우 알베르토 신부님~



따스하던 그날의 봄날...꽃이 지어 슬픈 이별이 있었지만 이후 다른 아름다운 꽃이 피어 감동과 기쁨을 주듯이 새로운 만남 또한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이곳 성모의마을에 오신 이강우 신부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분일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기뻐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모의마을과 이강우 신부님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격하게 환영합니다~!



소식방



##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 방문

부활대축일을 맞이하여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님께서 성모의 마을을 찾아주셔서 미사를 해 주시고 가족들 점심식사도 보조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비워야 하고, 나 자신을 봉헌하는 부활의 삶, 기쁜 삶을 항상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성모 가족들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 삼성화재후원 - 75인치 TV, 노트북

2005년부터 매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삼성화재에서 75인치 Tv와 노트북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니 영화관이 부럽지 않네요~^^ 후원해 주신 삼성화재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지연



## 직원표창 - 박지연, 최재원, 박승욱

오랜기간 현장에서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신 직원들이 표장을 받았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세 분 선생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재원



박승욱



-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장관표창 : 박지연
- 제38회 장애인의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표창 : 최재원
- 제38회 논산시 장애인의날 기념 시장 표창 : 박승욱

## 공군참모총장 방문, 공군군악대 공연

계룡공군본부에서 공연봉사와 함께 노력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군참모총장님께서 우리시설을 방문하여 거주인들에게 많은 격려와 함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기를 기증하여 주셨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공연관람을 하여 주셨습니다. 구슬땀을 흘리시며 노력봉사를 해주신 부대원님들과 멋진 공군 군악대. 마술. 사물놀이. 중창단의 공연으로 저희 성모의가족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 개별욕구프로그램 - 선유도

### \* 선유도를 다녀오다!

개별욕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두가 원했던 바닷가의 여행지로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는 선유도로 목적지를 정하고 경치도 좋고 물이 빠졌을 때는 바다가 하트모양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도 볼 수 있는 섬. 한사람 한사람의 욕구를 반영해 진행된 나들이여서 기쁘게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들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 지길 희망해 봅니다.

## 한국타이어 삼겹살 파티

매년 한국타이어 동그라미 봉사단에서 저희가족들을 위해 삼겹살 파티를 해주십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봉사자분들의 사랑이 더해져 가장 맛있는 삼겹살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주시고, 그 덕분에 가족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가족들을 위해 많은 것을 주심에도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 한국타이어 봉사자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 마음 잊지 않을께요~



#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01  
January

01.09 이안미용실 미용봉사



01.13 부모회 사업설명회



01.16 100원 한끼나눔 협약식



01.22 황산별 연주동호회



02  
February

02.12 상월면 농가 주부회



02.19 계룡대 근무지원단



03  
March

03.08 LH토지공사 대전지부



03.12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동아리연합회



03.13 노래교실



03.14 소방훈련



03.21 꽃삽 호떡봉사



03.21 장순루 자장면봉사



03.31 파스카성야 미사



04  
April

04.01 김영교신부님 금경축미사



04.07 궁동성당 감자파종



04.07 동방고등학교



04.19 삼성화재 RC나누미와 함께하는 봄소풍



04.20 대전우편집중국



04.20 장애인의 날



04.22 대전대덕구 베이비부머 공연



04.22 이강우 알베르토 신부님 미사



05  
May

05.08 직원 건강검진



05.09 성모의 밤



05.11 한국타이어 봄소풍



05.15 공군분부



05.25 한국수자원공사 놀뫼물사랑



06  
June

06.05 뷔페 프로그램



06.06 거소투표 교육 동영상 시청



06.07 거소투표



06.07 미용봉사



06.19 응급처치교육



06.22 법정의무교육



06.23 공동성당 감자수확



06.25 논산홈플러스 후원



06.27 인천가톨릭대학교 봉사





# 사랑을 주신분들입니다

성모의마을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후원자님을 위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 신규 후원자 : 첫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논산대교동성당, 대전성모기사회, 보령발전본부, 윤메디팜, 권상희, 권서율, 권은찬, 길기진, 김응수, 김정래, 김진연, 김철주, 김희순, 남상숙, 박문평, 박병석, 박선영, 박용성, 박종호, 박혜경, 안미훈, 양점숙, 유정화, 유석종, 유영주, 이강우, 이도엽, 이미영, 이병숙, 이성만, 이인한, 이정욱, 이평순, 이한별, 이효정, 임서윤, 임혜숙, 전향국, 정경미, 주현우, 한송희, 홍순화, 황선주

## 후원금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까지)

궁골식품, 금강전기, 대림농장, 대전내동성당, 성모의기사수녀회, 아이러브피플, 육군계룡사랑후원회 일신주방, 월드카센타, 정다운한의원, 탄방동성당, 태양철물건재상사, 하나병원유성근, 한국드라이베이팅(주), 한국타이어, 해군정보화기획실, 해피빈, (주)대율, (주)라이온켐텍, (주)리드텍, (주)진미식품, (주)휴베나, 강대훈, 강덕일, 강명순, 강복순, 강승희, 강신균, 강애선, 강영미, 강영수, 강인숙, 강정미, 강차중, 강창희, 강호정, 고순덕, 고연승, 고영숙, 고태성, 고효진, 곽동용, 곽명자, 곽성훈, 곽전구, 곽태희, 구교상, 구본관, 구자희, 구청자, 권기문, 권민경, 권상로, 권수연, 권순임, 권연택, 권재순, 권태형, 기영진, 길숙종, 김경미, 김경숙, 김경임, 김광한, 김근태, 김금태, 김기, 김기철, 김길자, 김낙윤, 김남순, 김동일, 김동현, 김동화, 김명식, 김명중, 김명화, 김미선, 김미숙, 김미영, 김미현, 김민관, 김민호, 김병민, 김복수, 김복순, 김봉진, 김부더, 김상현, 김석환, 김선아, 김선업, 김선중, 김성남, 김성숙, 김성태, 김소영, 김수복, 김수자, 김수현, 김수희, 김숙희, 김순자, 김승우, 김시문, 김양숙, 김양식, 김양임, 김연희, 김영규, 김영부, 김영분,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임, 김영자, 김영택, 김영희, 김옥기, 김옹구, 김옹목, 김옹철, 김옹희, 김옹전, 김윤미, 김윤종, 김윤하,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형, 김의승, 김익현, 김인규, 김인숙, 김일우, 김장수, 김정란, 김정숙, 김정순, 김정옥, 김정하, 김정호, 김정희, 김종대, 김종성, 김종심, 김종영, 김종원, 김종윤, 김종임, 김종학, 김주영, 김준, 김준형, 김준호, 김진숙, 김진식, 김진아, 김진자, 김진팔, 김진희, 김창수, 김창식, 김창현, 김철수, 김춘달, 김춘자, 김태만, 김태모, 김태운, 김택수, 김한울, 김한주, 김한준, 김현곤, 김현수, 김혜경, 김희성, 나승준, 나정은, 나판균, 남궁각, 남금숙, 남봉우, 남순애, 노경우, 노광원, 노덕영, 노아네스, 노애선, 노영례, 노은숙, 노희숙, 도인록, 류관숙, 류재율, 류홍, 모상선, 목동군, 문경희, 문진호, 문창규, 민경식, 민병학, 민선옥, 박경인, 박관철, 박광천, 박광필, 박달영, 박미나, 박미희, 박병삼, 박병택, 박복남, 박삼현, 박상준, 박서호, 박선용, 박선호, 박성연, 박성현, 박순주, 박승욱, 박승현, 박영, 박영숙, 박윤자, 박은숙, 박은정, 박웅천, 박점단, 박정희, 박종희, 박주완, 박준성, 박지연, 박진옥, 박진홍, 박찬배, 박찬주, 박찬현, 박찬희, 박창규, 박창기, 박준지, 박해운, 박해임, 박현미, 박현숙, 박효식, 박희호, 방계순, 방성식, 방연옥, 배승호, 배지명, 백길종, 백승준, 백진기, 변경봉, 변두균, 변혜숙, 복진을, 부모회, 서경자, 서광자, 서교분, 서교택, 서기련, 서단아, 서영숙, 서장원, 서정석, 서지연, 선우환호, 성정모, 성희창, 소성섭, 손경미, 손동래, 손석재, 손세욱, 손은숙, 손형기, 송기성, 송명옥, 송순이, 송영익, 송재훈, 송철영, 송춘실, 수상덕, 승병희, 신경식, 신미숙, 신미순, 신상오, 신숙희, 신순자, 신순현, 신연화, 신이분, 신정자, 신진호, 신향순, 신형모, 신호철, 신효신, 심명옥, 심복섭, 안남순, 안동숙, 안명순, 안문숙, 안병옥, 안상길, 안성호, 안종희, 안주영, 양미경, 양옥석, 양태식, 어완, 업기성, 연광흠, 연제혁, 염규홍, 염동식, 염윤자, 염주란, 오경순, 오광순, 오명선, 오명화, 오상근, 오석현, 오숙자, 오연임, 오웅수, 오일교, 오점숙, 오종오, 오주영, 오주은, 오준식, 오준이, 오한나, 오현경, 오혜원, 오화진, 온유진, 용명익, 우인자, 우전, 우제춘, 원용희, 원재학, 원종철, 유경희, 유기화, 유명기, 유명희, 유미, 유부림, 유선희, 유양호, 유영구, 유영민, 유영철, 유이선, 유인운, 유재현, 유항옥, 유혜영, 유흥식, 육근홍, 윤계열, 윤길중, 윤문경, 윤병숙, 윤석권, 윤수자, 윤순자, 윤여분, 윤여직, 윤여철, 윤영광, 윤성섭, 윤영희, 윤옥자, 윤옥희, 윤완규, 윤은화, 윤재명, 윤정순, 윤진영, 윤한섭, 이경미, 이경순, 이경자, 이광수, 이규옥, 이기남, 이기상, 이기학, 이다리야, 이다원, 이드레, 이드재, 이도영, 이동호, 이두화, 이명수, 이명자, 이민옥, 이민표, 이병진, 이복규, 이상범, 이상영, 이상은, 이선량, 이선령, 이성민, 이성순, 이성하, 이세혁, 이소영, 이수경, 이수형, 이숙영, 이숙희, 이순옥, 이순조, 이승남, 이승욱, 이연호, 이연희, 이영란, 이영미, 이영옥, 이영임, 이영희, 이용구, 이용규, 이용남, 이용호, 이원길, 이원웅, 이월향, 이유미, 이윤복, 이은선, 이은수, 이은진, 이은철, 이인엽, 이장, 이장현, 이장희, 이재룡, 이재순, 이재승, 이재연, 이전규, 이정규, 이정구, 이정미, 이정범, 이정자, 이준오, 이종규, 이종숙, 이종옥, 이주경, 이준복, 이진경, 이진숙, 이진의, 이진형, 이충근, 이치자, 이택주, 이해운, 이향재, 이현래, 이현선, 이현수, 이현숙, 이현주, 이현희, 이해숙, 이해영, 이해옥, 이해진, 이호덕, 이홍천, 이화석, 이화연, 이흥재, 이희영, 임경수, 임경옥, 임덕순, 임동훈, 임문화, 임민자, 임민준, 임민찬, 임범택, 임상수, 임세영, 임은수, 임재신, 임찬욱, 임향빈, 장경수, 장기욱, 장동수, 장명호, 장미화, 장선옥, 장순자, 장영희, 장우상, 장원자, 장유창, 장정숙, 장진영, 장진희, 장한순, 전광운, 전선아, 전연인, 전용달, 전창

선.전혜련.전희선.정경순.정경애.정계순.정병호.정보옥.정상수.정석환.정선미.정선수.정선주.정연수.정영진.정유진.정은남.정은석.정은선.정은주.정재구.정지풍.정지현.정창수.정충희.정하양.정혜숙.정화숙.정환림.정훈경.조구상.조규정.조남욱.조성대.조성혁.조숙자.조숙희.조영갑.조영록.조영홍.조영화.조옥분.조유성.조진.조한수.조현.주면탁.지영옥.지영철.직원상조회.진은영.차미정.차영철.차옥남.차은.채경란.채미자.채병석.최경묵.최관집.최금옥.최덕화.최명희.최문자.최백석.최범순.최병립.최봉순.최상태.최선.최성근.최순옥.최영범.최영은.최영훈.최우연.최윤정.최인규.최인영.최재원.최정길.최주희.최해경.최혜수.최혜연.최효인.최희례.추현진.편재영.하만웅.하무순.하영호.하옥경하재영.하태천.한강섭.한경희.한동림.한상선.한상조.한선화.한원규.한치권.허신자.허홍근.현현섭.호승환.홍건표.홍광표.홍근선.홍명숙.홍성옥.홍승무.홍영숙.홍영일.홍예인.홍용의.홍윤정.홍은실.황규성.황명구.황선철.황인옥.황정희.황태성.황현숙

## 물품후원

고은카리타스푸드뱅크, 공군본부, 광석중학교, 권영학가족, 길기진, 김동민가족, 김명례가족, 김부식가족, 김양숙, 김영교, 김영부, 김원혁가족, 김철주, 김혜리가족, 김홍진, 논산푸드뱅크, 논산시청, 논산홈플러스, 대전교구본당사회복지협회, 덕명동성당, 동신농원, 동방고, 뚜레쥬르, 메리워드원드양상불, 명주원, 미래생활(주), 박규정, 박미나, 박서용가족, 박성수가족, 박진옥, 박종덕가족, 배미희(황토방), 부여성당, 삼성화재, 삼위일체성당, 상월농협, 상월면주민자치위원회, 상월부녀회, 성모의마을부모회, 서진호, 성낙순가족, 손예인가족, 손은숙, 신순자, 연산중학교, 염주란, 오세영가족, 이수호가족, 이지희가족, 우체국시설관리단, 유이선, 유흥식, 육군군수참모부, 이계천, 이수민가족, 이동기기족, 이병석가족, 이소영, 이영순, 이영희, 이정실, 이정우, 유보상가족, 임세영, 임정수지인, 임군수가족, 정철우가족, 장군마트, 장순루, 장재희가족, 장태산정육점, 적십자논산지점, 정규연가족, (주)정식품, 최경덕(비오), 최상태, 최영은, 최영현가족, 최재원, 최옥진, 최해경,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시설협회, 한결하우징, 한국타이어, 현대수산, 화진산업개발, 필립스

※ 알림 -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 | 생필품 |

세제, 고무장갑, 휴지,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등

#### | 식 품 |

과일 및 간식류

#### | 그 외 |

냉장고, T V,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

##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까지)

## 정기자원봉사팀

갈마동성당.궁동성당.계근단지원연대.계룡성당.김운중가족.김종필가족.내동성당.대교동성당.덕명동성당.도룡동성당.대전성모병원.대형환경.반석동성당.삼성화재RC나누미.삼위일제성당.안제성가족.이창규가족.전민동성당.정양원.중동성당.한국타이어동그라미봉사단.해군정보화기획참모부.홍윤정.LH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그 외 봉사해 주신 분들

계룡대공군본부.공무원교육원.광석중학교.동방고등학교.대전우편집중국.부여성당.인천가톨릭대학교.장순루.꽃삽.한국수자원공사논산지부.한일고등학교.

## 이·미용봉사

김경순.오미애.이안미용실.한밭이발봉사단

## 의료봉사

대전성모병원

## 꽃꽂이봉사

이명숙

## 공연봉사

계룡대 공군군악대.메리워드원드양상불.대전대덕구 베이비부모공연단.황산벌색소폰동호회



## 후원가입신청안내 (한사람 더 회원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전화 또는 성모의마을 홈페이지([www.smo.or.kr](http://www.smo.or.kr))를 통해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전화, 지로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가입 후에는 회원증과 함께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아래 계좌 중 자동이체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변경시 참고)

###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폰뱅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은행 대표전화(아래)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여 본인 확인 후 아래의 계좌번호 중 자동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 후원계좌번호

### 법인후원계좌번호

- 농 협 461058-51-011210 (대표전화 : 1588-2100)
- 국민은행 457-25-0005-696 (대표전화 : 1588-9999)
- 하나은행 663-113251-00105 (대표전화 : 1588-1111)
- 신한은행 100-009-187570 (대표전화 : 1577-8000)

- 예금주 -  
**성모의마을**

### 시설후원계좌번호

- 농 협 351-0762-7852-13 (대표전화 : 1577-2100)



## 후원금수입지출현황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06월 30까지)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과 목 명	금 액	과 목 명	금 액
이월금	213,221	급 여	38,454
지정후원금	-	제 수 당	21,668
비지정후원금	132,933	퇴직금및퇴직적립금	5,722
		사회보험부담비	4,253
		기타후생경비	620
		기관운영비	700
		회 의 비	1,660
		여 비	217
		수용비및수수료	4,110
		공공요금	29,546
		제세공과금	2,664
		시 설 비	38,940
		자산취득비	759
		시설장비유지비	4,760
		차량비	
		연료비	1,190
		자활사업비	
	346,154	합 계	155,263

# 콜베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성모의기사수녀회에 초대합니다.



## [창립]

본 회는 1917년에 로마에서 원죄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M.I)를 설립하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유지를 받은 미에치슬라오 미로하나 신부에 의해 1949년 일본 나가사끼에서 창립되어 M.I의 정신으로 사는 수녀회입니다.

## [정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정신에 따라서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성심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 [사도직]

일본, 폴란드, 한국에서 M.I의 정신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출판사업과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모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모임>**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문의 : 041-732-3583(수녀원) 041-732-2085,0889(사무실)

성소담당자 : 010-3399-3583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1166(대촌리 122-1) 우)32907

\* 성소상담 수시 가능

홈페이지 \_ [www.fsomik.co.kr](http://www.fsomik.co.kr)

## 성모의마을 찾아 오시는 길

### >>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올 경우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22.2Km> 약40분 소요 → 공주 · 논산방향(국도23번)

→ 유평교차로 신원사방향(지방도로697) → 연산방향(지방도로697번) → 대명초등학교(1.5Km) → **성모의마을**

### >> 대전 영남권에서 찾아올 경우

서대전IC<40Km> → 대전~논산간(국도1호선) → 연산검문소(우회전), 연산삼거리에서(12Km)

→ 상월방면(697번 지방도) → **성모의마을**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

메아리에 게재된 사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